

삼성전기, MLCC 고부가 수요 급증… 전장·AI 경쟁력 확대

〈적층세라믹콘덴서〉

MLCC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개선
AI 서버·전장중심 고사양 수요 증가
초소형·고전압 전장용 기술력 강화
원재료 내재화로 공급 안정성 확보
필리핀 중심 글로벌 생산 역량 확대

삼성전기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생산라인이 '풀가동' 체제에 진입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글로벌 상위 업체 가운데서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MLCC의 고사양화와 전장·서버용 수요 확대가 맞물리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의 MLCC 제품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부문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9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 81% 수준에서 풀가동 체제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등의 고기능화 추세로 MLCC 탑재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AI 서버용 및 전장용 MLCC는 기술 난도가 높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아 삼성전기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MLCC 수요 성장에 힘입어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액은 2조 8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다. 이 가운데 컴포넌트 사업부 매출은 1조38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전기는 소재 기술 및 공정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소형, 초고용량, 고온, 고압 등을 보증하는 AI서버용·전장용 제품라인업을 확대하며 경쟁사대

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2월 자율주행용 세계 최고 전압 초소형 MLCC(1005사이즈)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2.2마이크로패럿(μF) 용량, 10볼트(V) 고전압을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전장제품 필수 신뢰성 규격 AEC-Q200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차체, 새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기는 MLCC의 핵심 기술인 세라믹 원재료를 자체 개발·제조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에 전장 전용 원재료 공장을 신축해 지난 2020년부터 가동 중이다. 현재 삼성전기는 국내 수원과 부산사업장은 연구개발 및 신기술 및 원료 생산을, 중국 톈진과 필리핀 생산법인을 대량 양산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삼성전기는 필리핀 MLCC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는 필리핀 소재의 MLCC 양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

기 장덕현 사장은 지난 11월 부산사업장에서 페르디난드 마크로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및 MLCC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기의 견조한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켓츠는 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서버 시장이 지난해 1429억달러(약 196조원)에서 2030년 8378억달러(약 11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자율주행 기능 발전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차량용 MLCC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로도로 인텔리전스는 해당 시장이 지난해 4조5000억 원에서 2028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삼성전기 MLCC 사업은 산업·전장용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생산 거점 다변화를 병행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美 관세 인하에 반등 시동… 글로벌 판매 증가 ‘청신호’

관세 15%로 인하… 대미수출 기대
美 HEV 판매 호조로 수익성 개선
인도·호주 등 글로벌 점유율 견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떨고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북미 시장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압박으로 올 하반기 판매량 감소세를 겪은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거점 전략을 재정비하고 수익성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개월 가량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31만 6351대·7.7% ↑), 중남미(10만7542대·13.6% ↑), 아프리카(2만9110대·25.5% ↑) 등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으나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하긴 역부족이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올해 실적을 보면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기 3조6016억원, 3분기 2조5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9.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5.4%까지 급락했다.

다만 미국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

가 지난달 미국에서 3만6172대를 팔아 치우며 최다 월간 하이브리드(HEV) 판매량을 기록했다. 고수익 차종인 HEV의 판매 확대로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달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1월 1일로 관세가 소급돼 다행”이라며 “내년 미국 시장이 관망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기아는 인도와 호주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호주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FCAI)에 따르면 올해 1~10월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은 13.3%다.

기아는 6.9%로 4위, 현대차는 6.4%로 5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자동차공업

협회(SIAM)도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인도 시장 합산 점유율은 약 19%로 인도 완성차 업체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도 국내에서 1.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대로 올해를 끝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할 경우 국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시스템, 국내 최초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 착수

군 저궤도 통신 핵심 기술 국산화
디지털 빔포밍으로 고속 통신 구현
K-우주국방 자립 기반 본격 추진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방우주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인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과제를 협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트랜시버 우주반도체’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의 핵심 부품이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지상과 우주 간 통신을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사일·레이더·군용 통신 등에 활용되는 국방 반도체는 산업용 반도체 대비 훨씬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우주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신호처리 기반의 실시간 정밀 빔 형성·제어 기술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위성통신 환경을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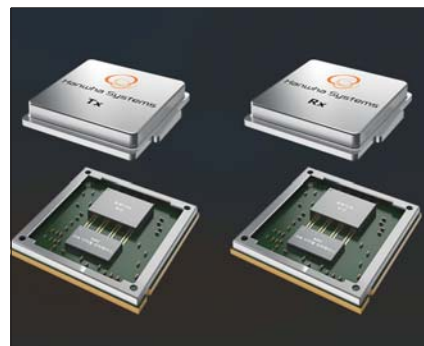
아울러 다채널 구조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파수 효율성도 개선했다. 적은 수의 반도체 소자만으로도 원활한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소형 통신위성 탑재에도 용이하다.

군용 우주인터넷으로 불리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은 작전지역 내 통신 음영구역 및 통제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는 초연결·초고속 통신 서비스다.

고도 500~1200km의 궤도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통신위성은 평시에는 안정적인 이고 유연한 위성통신 기반을 만들고, 전시에는 최후의 통신 수단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군에 최적화된 저궤도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을 착수,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연동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로 인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저궤도 통신위성의 국내 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은 자주적인 K-우주국방 실현



한화시스템이 개발할 트랜시버 우주반도체의 예상 분해도 형상. /한화시스템

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우주자산을 국산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